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사51:12)

8월 29일
8권 35호

- ①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등록카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②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예배시간에 핸드폰은 무음이나 꺼두시기 바랍니다.

01 목회권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감이 심화되고 있지만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를 통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02 예배

대면 종교활동 완화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적용으로 대예배실(30명)까지 현장예배와 함께 실시간 온라인예배를 드립니다. 교회학교도 유치부(유튜브), 초등부(Zoom), 중고등부(듀오)로 온라인예배를 드립니다.

03 9월 특별새벽집회

9월 1일(수)~4(토)에 9월특별새벽집회가 현장예배와 실시간 온라인예배로 진행됩니다. 집회 기간에 드러진 헌금은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헌금과 미자립교회 지원에 사용됩니다.

- * 주제: 위기의 시대를 이기는 지혜(잠 3:15)
- * 시간: 1부(6시), 2부(10시)

04 수요가정예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예배 순서지(교회 홈페이지 참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다른 평일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우소식

- * 사랑의 나눔(떡): 김정인 집사/이현경 권사(사업장 확장이전 개업감사)
- * 환우들: 윤동섭 장로, 변춘식 장로, 박장금 권사, 김정옥 권사, 송의자 권사, 장정순 권사, 한희자 권사, 이기선 집사

1.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 9월 1일~4일
- 9월 특별새벽집회
2. 코로나19 종식과 의료진을 위하여
3. 제일명성교회와 광주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4.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5.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광주제일명성교회는 2014년 1월25일 창립 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명성**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 하나이지만,
이 교회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주 일 예 배	1부	07:00	본당 예배실
	2부	09:00	본당 예배실
	3부	11:00	본당 예배실
주일찬양예배	14:00		본당 예배실
수 요 기 도 회	19:00		본당 예배실
새 벽 기 도 회	05:30(월~금)		본당 예배실
	06:00(토)		
탁 아 부	09:00/11:00		비전센터 4층 사랑실
유 치 부	11:00		비전센터 3층 소망실
초 등 부	11:00		비전센터 2층 믿음실
중 고 등 부	09:00		비전센터 5층 은혜실
청 년 부	13:30		비전센터 5층 은혜실

담임목사	윤호식
부목사	김상태 문성우 박순영 강중현
전도사	이원규
원로장로	최진호
은퇴(협동)장로	석용문 윤동섭 변춘식
시무장로	박인순 차덕조 경명희 최영식
지휘자	강신모 윤정민 한경민
반주자	김범준 김슬기 박은영 허주원

- 1 강대권 · 함선희(네팔)
- 2 김진수 · 류선헤(키르기스스탄)
- 3 엄기정 · 이해경(요르단)
- 4 오베드로 · 이신영(브라질)
- 5 대한교회
- 6 비전명성교회
- 7 우이도서부교회
- 8 동리교회
- 9 선공교회
- 10 부산온누리교회
- 11 예수마음교회
- 12 이삭선교회
- 13 영목선교회
- 14 아프리카선교회
- 15 GH선교회
- 16 범양선교회
- 17 서울장신대학교
- 18 C채널

캄보디아 개척교회

프놈교회 · 톨라잉뽀아교회
꼭쓰다오교회 · 뜨러빠엣교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1부 07:00		2부 09:00		3부 11:00	
* 여 는 찬 양		주 기 도 문					
* 예 배 선 포		인 도 자					
* 찬 송		9장(2절)					
* 공동기도문		다 갈 이					
*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찬 송		80장					
기 도		한옥희 권사		박정미 권사		이명호 집사	
교 회 소 식		인 도 자					
새 가 축환영		시 46:1-5					
성 경 봉 독		노미정 집사		이영희 집사		이별님 집사	
찬 양		한경민 집사		이덕수 집사		윤정민 집사	
오늘의말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윤호식 목사					
봉 헌		445장					
* 친 교		다 갈 이					
* 송 영		아무 것도 두려워 말라					
* 축 도		윤호식 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오후1시

주	일	4	부	예	배
찬	양		빈	들에	마른 풀같이
기	도		변	승지	
성	경		눅	5:17-23	
설	교		박순영	목사	
축	도		박순영	목사	

오후7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가정에서 순서지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

8/30(월)	삿 12:1-7
8/31(화)	고후 6:14-18
9/1(수)	
9/2(목)	9월 특별
9/3(금)	새벽집회
9/4(토)	

줌(zoom)으로 비대면예배를 드립니다.

--

■ 대표기도	1부	2부	3부
9/5	엄영애	송길선	조미애
9/12	국영숙	최경란	차덕조
9/19	이현경	장복실	권경자

■ 성경봉독	1부	2부	3부
9/5	홍순자	김인숙	구도영
9/12	이혜숙	박혜미	김은지
9/19	이기옥	김미성	최현숙

■ 지 난 주 등 록

■ 2021년도 등록자		
한주동(3남선교회)	김정옥(사라여선교회)	김명기(4남선교회)
안성진(4남선교회)	김성건(4남선교회)	유은채(유니게여선교회)
강옥순(한나여선교회)	김재희(한나여선교회)	남송희(사라여선교회)
박진영(청년부)	강영한(2남선교회)	강애란(에스터여선교회)

제 목: “말도 안되는 이야기”(눅 5:1-7)

오늘 본문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수인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전공이 다른데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고 지금은 허탈하게 그물을 찢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 님의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결과는 엄청난 만선의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한 배도 아니고 두 배에 가득 차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쳐라”라고 합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135m 크기의 방주를 바다가 아니라 산에 만들라”고 하시고,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라고 전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쫓락 망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다고 수치를 당하거나 완전히 실패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도 안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특히 이슬람권 선교는 더욱 그렇습니다.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종교를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순종의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를 거두실 것을 믿기에 그저 순종하며 열심히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이 되는 이야기도 순종을 잘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더욱더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중동에는 양들 중에 덩치가 큰 숫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양무리를 목자에게 이끄는 대장 역할을 양이 있습니다. 대장 양은 싸움을 잘하거나 힘이 센 녀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어미나 목자의 말을 잘 따르는 양 몇 마리를 골라 특별양식을 주며 따로 키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년이 되면 그중에 제일 순종을 잘하는 한 마리의 목에 방울을 달고 대장 양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쓰시기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골라서 사용하실까요? 무엇보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 특히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주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귀히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특별새벽집회
* 주제 : 위기의 시대를 이기는 지혜(잠 3:15)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 9월 1일(수)- 4일(토), 하루에 두 번, 오전 6시와 10시에 예배당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셔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시대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 집회 기간에 드려진 헌금은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헌금과 미자립교회 지원에 사용됩니다.

■ 심일조

강예식 김삼연 박정옥 윤호식 이복순 이종부 이혜숙 정명희 정진숙 조옥순 차금미 채석진 함계성 무 명

■ 감사헌금

강대희 강예식 강인환 김영섭 김영춘 김재희 문다윗 문성우 박진영 박준주 박혜미 복 희 신동현 심승미 오현애 이기욱 이덕수 이용자 이혜숙 정선영8 정진숙 조은선 채석진 하나경 한경민 한옥희 황수훈 무 명

■ 주정헌금

권영숙 김귀근 김만수 김양희 노우희 박인순 박정미 박혜미 손막동 엄만우 윤선례 윤정민 이원규 이항실 이혜숙 장재욱 정순희 정영규 정유진 제언희 조근석 차금미 최경란 최영식 최진호 황수훈 무 명

■ 선교헌금

강예식 김삼연 김학수 박정옥 변성진 복 희 정명희 정윤옥 조미애 조옥순

■ 일천번제

김정혜 임채명

■ 건축헌금

황인순

■ 장학헌금

문명숙 김광재 함계성 차덕조 이원규 이종길 변성진

온라인헌금안내
국민은행 633801-04-144338(광주제일명성교회) 예) 심일-홍길동, 감사-홍길동

우리 가족 건강 지켜주시고 온 교우들과 사랑을 나누는 분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애통이 쓰이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구원의 수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학생들의 앞길에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성경통독은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통독 은혜롭게 완료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거처와 새로운 사업장을 주셔서 이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씩 해결점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녀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큰 사위 건강하게 하시고 위염을 낫게 하옵소서. 율여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한간 큰 손주를 지켜주옵소서. 믿음의 주님, 사랑으로 채워주신 우리 가정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매를 따라 듣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지켜주옵소서. 모든 삶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 안에서 행통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을 없이 믿음 생활하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빠르게 자라도록 기도합니다. 가족들의 건강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머니의 건강과 삼촌의 믿음과 동생의 앞길을 축복하옵소서. 자녀 손들 가정마다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자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매일 매일 첫 시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문화선교교회 / 선교동아리

	축 구	탁 구	바 독	족 구	등 산	불 링	실버합창
부장	장재욱	김교민	정성환	석용문	김학수	홍순자	채석진
총무	김병조	박인순	이종구	이승수	한상준	한경민	장복실